

## 맑스(1818-1883)의 정치경제사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결사체” (공산당선언) --> 개별성과 정체성을 지닌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기반한 공동체의 건설

### 1. 역사발전을 보는 맑스의 관점: 역사적 유물론(“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화”)

- ◇ 맑스는 사회를 두 개의 구조로 나눔
- ◇ 이 두개의 구조는 ‘하부구조’(혹은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
- ◇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조건지움
- ◇ 하부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가 상부구조인 정치, 법률, 문화, 이데올로기 등을 규정  
->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 따라서 맑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부구조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 상부구조에 대한 분석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를 지니지 못함

“이러한 생산관계들의 총체성이 진정한 토대인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일어나며, 특정한 사회적 의식형태도 이에 상응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정신적인 생활과정 일반을 결정한다”

- ◇ 역사를 생산양식( = 생산력 + 생산관계)의 관점에서 이해
- ◇ 맑스는 ‘생산관계’에 관해 언급 --> ‘생산관계’는 물질적인 ‘생산력’의 일정한 단계에 상응
- ◇ ‘생산력’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보자. ‘생산력’은 ‘생산관계’를 낳는다 --> 사회의 경제구조를 구성하는 것은 ‘생산력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생산관계’
- ◇ 이 경제구조가 상부구조를 낳는 바로 그 토대
- ◇ ‘생산력’ = 생산을 위해 사용된 물건들( 노동력, 원료, 기계 등)
- ◇ ‘생산관계들’ = 인간 사이의 관계들, 혹은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의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이를 자본가가 구매하는 행위, 즉 판매와 구매는 곧 생산관계를 의미)

### 2.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

#### 1) 엥겔스: 『정치경제학비판요강』

- ◎ 자본주의의 기본적 문제 --> 경쟁체제의 도입
- ◎ 경쟁은 개인의 자율성, 개별성 혹은 개성을 해침, 개인들을 서로 반목 및 질투하게 만듦
- ◎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의 자본가 사이의 경쟁 --> 대자본이 중소자본, 즉 대규모 제조업자가 영세한 중소 제조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집중을 초래

◎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에 기반한 경쟁 ->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 사회를 분열

2)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 정치경제학 비판은 곧 자본주의 경제질서 내지는 구조에 대한 총체적 비판 --> “이 책(자본 1권)의 궁극적 목표는 근대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폭로하는 데 있다.”

- ◆ 자본주의경제 = 상품교환경제( 자본, 노동, 토지 등은 상품으로서 서로 교환)
- ◆ 자본주의적 생산 = 자본이 노동시장에서 구입한 노동력과 상품시장에서 구입한 생산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 즉 잉여가치를 취득하여 자기증식하는 역사적으로 특유한 생산.
- ◆ 자본주의 생산의 총체적 성격과 전반적인 운동을 규정하는 것 ->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임금노동이라고 하는 사회적 생산관계(자본주의적 생산과정 = 노동과정 + 가치증식과정)
- ◆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임금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음 -> 반면에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입한 후에 이것을 소비하는 생산과정은 사실상 임금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감독 및 지배 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 ◆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혹은 생산양식에서 자본가는 자본의 인격화이며, 임금노동자는 노동의 인격화
- ◆ 자본주의 생산양식 = 죽은 자(죽은 노동, 자본)가 산 자(살아있는 노동, 노동자)의 삶과 피를 빨아먹는 양식에 그 토대를 둠

“자본가는 자본이 인격화된 것이다. 그의 영혼은 곧 자본의 영혼이다. 그러나 자본은 오로지 하나의 생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가치를 증식하고, 잉여가치를 창조해내며, 최대한 많은 양의 잉여노동을 빨아들인다. 자본은 흡사 흡혈귀처럼 오로지 살아있는 노동을 빨아먹으면서 사는 죽은 노동이다. 더 많은 노동을 빨아먹을수록 자본가는 더 풍족한 삶을 누린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산 노동력을 빨아먹는 시간이다.”

- ◆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노동자는 생존하기 위해 인간존재의 본질인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함 -> 자본가는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이 노동을 사용 -->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력은 점점 더 커짐 -> 자본가는 더 부유해지는 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단지 생존에 필요한 최저선을 헤매게 됨

“노동력은 그 소유자인 임금노동자가 자본에게 파는 하나의 상품이다. 그는 이 노동력을 왜 파는가? 살기 위해서다.”

- ◆ 자본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언제나 담지 -> 이 관계망 속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라는 일방적인 의사소통망이 형성
- ◆ 자본과 노동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 ->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자본과 상

품으로서의 노동력이라는 사물과 사물의 관계 -->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생산관계가 사물과 사물의 관계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인간들의 의식이 전도되고 이 의식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데 이를 “물신숭배”라 함

◆ 물신숭배 = 상품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의미 --> 물신숭배는 인간의 노동생산물이 상품형태를 취하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

◆ 상품생산사회에서 물신숭배 = 황금숭배 혹은 배금사상 --> 인간세계에 대한 상품세계의 지배 --> 상품의 물신적 성격은 단지 사회적인 의식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자본에 의한 생산이 지배적인 사회형태로 발산하는 논리적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

◆ 상품세계를 지배하는 화폐 = 화폐물신으로 인간들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사회적 권력의 화신 -->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인격이다’라는 말은 곧 ‘화폐가 상품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 --> 이런 현상은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교환하기 위해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 화폐 \*\*\*\*\*

화폐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모든 대상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뛰어난 소유물로서의 대상이다. ...화폐는 인간의 욕구와 대상 사이의, 인간생활과 생활수단 사이의 중개역할을 한다. ... 화폐는 나에게 있어 또 다른 인간이다(경제철학논고, 1844)

화폐의 성질은, 나 - 즉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의 성질이며 본질적인 힘이다. 따라서 내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결코 나의 개성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보기 흉한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아가씨도 살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보기 흉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추함이 주는 인상, 사람을 섬뜩하게 만드는 그 힘은 화폐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이다. ... 나는 사악하고 불성실하고 양심도 재치도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화폐는 존경받는다. 따라서 그 소유자도 존경받는다. 화폐는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그 소유자도 선량하다. ... 나는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모든 일을 화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과 자연의 모든 성질을 전도시키고 혼동시키며 화합할 것 같지 않는 것을 화합하게 하는 화폐의 신적인 힘은, 화폐란 인간의 유(Gattung)로서의 본질이 소외되고, 외화되며, 양도된 것이라고 하는 화폐의 본질 안에 숨어 있다. 화폐는 인간성의 외화된 능력인 것이다

◆ 임금노동 = 자본주의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역사적 조건 --> 자본은 ‘독립된 사회적 힘’이며, 직접적이고 살아있는 노동력과의 교환을 통해 자신을 증식

◆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 --> 자본이 증대하면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지배도 증가

- ◆ 임금노동은 자신을 지배하는 부를 창출, 이 적대적인 힘으로부터 자신의 생계수단을 획득
- ◆ 임금노동은 자본의 증대에 기여하는 조건하에서만 자신의 생계수단을 벌 수 있음 -> 노동은 자본의 증식에 기여하는 '생산적 노동'으로 기능할 때만이 자신의 존재기반을 확보 -> 사회적 권력인 자본은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더 치밀하게 자신의 제국을 건설
- ◆ 임금노동 = 인간노동의 소외 = "소외된 노동"
- ◆ 인간의 노동 --> 창조적 행위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유적 존재임을 확인 --> 유적 존재는 창조적 행위자
- ◆ 자본주의 사회 = 자본의 증식 및 팽창 --> 자본이 인간을 지배 -->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자본 --> 인간은 자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객체에 불과 -> 객체가 주체가 되고 주체가 객체가 되는 '주객전도' 현상 ->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자연적인 과정
- ◆ 『자본』 (부제: 정치경제학비판) --> 인간이 하나의 소외상태로 존재한다는 이념에 기반 -> 이 소외상태에서 인간의 창조물은 인간에게 적대적이고, 소외된 힘으로 대면 ->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물신화는 자본이 지배하는 생산의 내적 구조에서 발생하며, 이 사회의 존재형태 및 본질

### 3) 자본주의 경제질서는 비인간적인 착취체제

- 맑스는 '대상화된'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을 구별
- '대상화된' 노동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미리 정해진 양(예를 들면 8시간 노동) --> 이것은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 이 상품의 교환가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액수 --> 이 액수는 노동자를 살아있게 하고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교환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내포 -> 자본가는 계약상으로 지정된 시간 동안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노동력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만큼의 가능한 한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노동력을 사용
-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노동력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노동자는 고정된 액수만을 받음.
-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 --> 자본가가 지불해야 하는 노동의 교환가치 이상의 가치

■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자본의 순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아래의 도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화폐(G) -> 상품(W) -> 생산수단(Pm) -> 생산과정(PP) -> 완제품(W') -> 화폐(G')  
-> 노동력(Ak)

- ▲ 자본가는 자신의 화폐(자본)를 가지고 생산에 필요한 상품,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입
- ▲ 그는 이 상품들을 가지고 특정한 제품을 생산-> 특정한 상품을 다시 화폐로 회수
-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자본은 3단계를 거치며 순환 --> 그 첫 번째 단계는 화폐를 가지고 상품,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입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가지고

고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완제품을 판매하여 화폐로 다시 회수하는 단계.

▲ 첫 번째 단계에서 자본가는 화폐형태로 자본을 가지고 있음 -> 이를 화폐자본이라 부름.

▲ 이 화폐자본도 상품자본(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입)으로 전환 -> 이 상품자본은 생산자본으로 전환 --> 마지막 단계에서 자본가는 완제품의 형태인 상품자본의 형태를 취함 -> 이 상품자본을 화폐자본의 형태로 회수해야 함.

▲ 산업자본의 순환 = 화폐자본, 생산자본 그리고 화폐자본의 형태를 취함 이를 자본의 기능 형태라는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 | 산업자본의 순환형태 |

화폐자본 -> 생산자본 -> 상품자본 -> 화폐자본

▲ 마지막 단계에서 화폐자본으로 전환할 경우, 이 화폐자본은 원래 자본가가 가지고 있었던 화폐자본의 양보다 더 많아야 함 -> 예를 들어 자본가가 원래 1백만 원의 화폐자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단지 1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회수한다고 한다면, 이 자본가는 무엇을 위해 자본을 투자했던 말인가! 자신의 이윤 등을 고려할 경우 자본가는 최소한 1백만 원 이상의 화폐를 회수해야 함

■ 맑스는 초기에 투자한 화폐자본과 마지막에 회수한 화폐자본의 차이를 “잉여가치”로 정의 이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잉여가치에 관해 탐색해보자.

▲ 한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생계비가 4000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하루에 이 노동자가 행하는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하자. 그럴 경우 8시간에 대한 노동력의 교환가치는 4000원이다.

▲ 하지만 노동강도의 증가 및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자가 4시간 만에 자신의 하루 생계비에 해당하는 4000원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자. 그러면 8시간 동안에는 8000원을 벌게 된다.

▲ 8시간의 노동은 내용상으로 보면 4시간과 4시간으로 나뉘어진다. 맑스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노동을 “필요노동”이라 부르며, 나머지 4시간을 “잉여노동”이라 칭함.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4000원이며, 나머지 4000원은 자본가의 몫으로 돌아간다.

▲ 자본가는 4시간의 잉여노동을 통해 4000원이라는 잉여가치를 노동자로부터 추출.

▲ 이 점을 산업자본의 순환과정에서 등장하는 단계들을 통해 다시 주목해보자. 산업자본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는 그 자체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계약을 통해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 예를 들어 자본가는 8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금액(4000원)을 노동자에게 지불--> 이른바 자유계약의 원칙

▲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단계인 생산단계에서 발생 -->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노동자는 이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함

▲ 자본가가 8시간 동안 단지 4000원만을 창출하도록 노동력을 사용한다면, 어디에서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라고 정의되는 ‘이윤’을 챙길 수 있단 말인가?

▲노동강도의 증대 및 생산력의 발전을 이용해 자본가는 자신의 '이윤'을 챙기고자 노력 -->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 -> 그 결과 4시간의 잉여노동이 발생하고, 이에 상응하는 잉여가치가 발생

▲ 자본가는 이 잉여가치를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전유.

▲ 그렇다면 자본가의 '이윤'의 원천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 이윤은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노동, 즉 잉여노동에서 발생, 이 잉여노동으로 인해 잉여가치가 창출 ->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본질상 이 잉여가치는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자본가의 몫

#### 4. 자본주의에서의 실업: 기술의 발전과 실업("산업예비군")의 관계

■  $P(\text{이윤율}) = M/C+V$

M = 잉여가치; C = 불변자본; V = 가변자본  
 $M/V$  = 잉여가치율;  $C/V$  =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 불변자본: "...생산수단, 즉 원료나 보조재료 혹은 노동수단으로 전화하는 자본 부분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불변자본 부분 혹은 ...불변자본이라고 부른다."

■ 가변자본: "...자본 가운데 노동력으로 전화한 부분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가 변한다. 이 부분은 자신의 등가와 그것을 넘는 초과분, 즉 잉여가치를 재생산하는데, 이 잉여가치도 변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자본 가운데 이 부분은 불변적인 크기에서 가변적인 크기로 끊임없이 전화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변자본 부분 혹은 ...가변자본이라고 부른다."

■ 잉여가치율: 잉여가치율은 잉여가치 대 가변자본의 비율( $M/V$ ) --> 이것이 곧 노동력의 "착취도"를 나타내며, 한 단위의 노동력이 창출해내는 잉여가치의 크기 --> 잉여가치율이 높다는 것은 곧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은 필요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비율이며, 따라서 잉여가치율( $M/V$ ) = 잉여노동/필요노동이 된다. ...잉여가치율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도 혹은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도의 정확한 표현이다."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는 상승 --> 불변자본에 투하하는 자본은 가변자본에 투하하는 자본에 비해 증대 --> 가변자본에 투하하는 자본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실업의 증대를 초래

#### 5.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축적과 더불어 발생하는 현상이 곧 자본의 집적과 집중

■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통하여 자본축적은 진행 --> "모든 축적은 새로운 축적의 수단"이 되며, "자본으로 기능하는 부의 양이 증대"함에 따라 "축적은 개별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부의 집적을 증대" --> "대규모 생산의 토대와 특수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토대"를 확대

“사회적 자본의 증대는 다수의 개별 자본의 증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 자본집중: 개별 자본가들의 “독립성의 파괴”이며,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 “다수의 소자본을 소수의 대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 -->

“한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의 수중에 자본이 대량으로 증대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축적과 집적과는 구별되는 진정한 집중이다.”

■ ‘자본의 집적’은 ‘자본의 집중’으로 이어짐 ->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은 상품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어남 -> 상품가격의 하락은 일차적으로 노동생산성에 의존하며, 노동생산성은 생산규모에 의존

■ 이러한 경쟁에서 대자본은 소자본보다 훨씬 더 우세한 입장 -> “대자본이 소자본을 물리친다” --> 경쟁은 “적대적인 자본들의 수에 비례”하고 “언제나 다수의 소자본가의 멸망”을 초래, 소자본가들의 자본은 “부분적으로는 승리자의 수중”으로, “부분적으로는 사라진다”. 자본의 집중법칙과 관련하여 맑스는 “아주 새로운 힘”이자 오늘날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용제도”를 지적

■ “신용제도는 처음에는 축적의 겸손한 조수 Beihilfe 로 은밀히 기어 들어와 사회의 표면에 거액 또는 소액으로 산재해 있는 화폐재원을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개별 자본가 또는 연합한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끌어 들인다. 그러나 신용제도는 경쟁전에서 새로운 무서운 무기로 되며, 결국에는 자본집중을 위한 거대한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전환된다.”

■ “...집중은 ... 축적의 작용을 강화하고 촉진함과 동시에 자본의 가변부분을 희생시키면서 불변부분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변혁을 확대하고 촉진한다.”

## 6. 자본주의와 소득의 양극화 및 빈곤화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득격차는 증대 --> 노동자의 빈곤화

▲ 노동자의 절대적 궁핍화 혹은 상대적 궁핍화?

## 7.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국가에 대한 두 가지 이론 -> 1) 도구주의 국가 해석, 2) ‘상대적 자율성’에 입각한 국가 해석

◆ 고전적 자유주의자 혹은 자유지상주의자: 국가는 ‘필요악’으로, 다원주의자: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 ‘중재자’ 혹은 ‘심판관’

◆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필요한 것, 하지만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악’ --> 경제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에 맡겨둬 -> 국가의 임무는 개인의 재산, 생명, 자유를 보장함을 목적-->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 치안국가, 야경국가 혹은 오늘날의 용어로 “최소국가”를 지지 --> 국가가 산출의 평등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

◆ 다원주의자: 국가는 특정한 계급적 성격 및 특징을 지니지 않은 채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국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조정하고 중재.

◆ 도구주의 국가 해석은 1848년에 발간된 『공산당 선언』 -->

“대산업과 세계시장이 형성된 이후로 부르주아 계급은 마침내 현대의 대의제 국가에서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를 획득했다. 오늘날 국가권력은 부르주아 계급의 관심사를 관리하는 하나의 위원회일 뿐이다.”

-->이 문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는 단지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 혹은 시녀에 불과할 뿐 ->국가가 ‘공공의 선’이나 전체 인민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정치체가 아니라, 특정 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위해 활동하는 당파적 집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경제적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에 전적으로 의존--> 레닌의 표현대로 국가는 “피착취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

◆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Der achtzehnte Brumaire des Louis Bonaparte*』 (1852)  
--> 국가가 단지 경제적 지배계급의 도구가 아니라 이 지배계급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 (relative autonomy)’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 맑스에 따르면 나폴레옹 국가는 자신의 의지를 사회에 강요할 수 있었다. 이 국가가 어떤 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표현했다면 그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대중적 계급인 소농민의 이해관계.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집행권은 “전체 인민의 소유물”이며, 민주공동체를 집행하는 데 있어 전체인민이 포함 및 참여할 경우, 국가는 “윤리성”(Sittlichkeit)의 최고단계를 대변하는 윤리적 공동체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정부형태야말로 인간해방을 실현한다. 오로지 민주주의만이 보편적인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에 대한 인식과 실현인 자기결정에 있어 실제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적인 공동참여라는 합리적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가는 그 자신의 상위적 위치를 상실하고 사회의 민주적 지배에 예속된다.